

대화협력원리를 통한 表敬副詞 ‘幸’ 고찰* — 『史記』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백종이**

【목 차】

1. 서론
2. ‘幸’에 대한 선행연구
3.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4. 表敬副詞 ‘幸’의 언어 함축
5. 表敬副詞 ‘幸’의 한국어 표현
6. 결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대화협력원리를 통하여 『史記』 대화문에 출현하는 표경부사(表敬副詞) ‘幸’의 함축 의미를 분석하고 어떠한 한국어 번역으로의 화행 표현이 효율적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幸’의 사전적 의미와 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화자와 청자의 맥락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았다. 표경부사로 사용되었을 때 ‘幸’은 단순히 허사의 용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前後 맥락의 함축 정보에 따라 표현이 각각 달라지기도 한다. 해석과 번역은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 어휘적으로 같은 형태의 문장일지라도 각각 내포된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키워드】 謙敬副詞, 表敬副詞, 幸, 그라이스, 대화협력원리, 『史記』, 화용론

* 본 논문은 2019년 11월 23일 대한중국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노민정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초빙교수 (baizhi@dankook.ac.kr)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표경부사 ‘幸’을 포함하는『史記』 대화문의 함축 정보를 분석하여 문장의 속뜻을 살펴보고, 현재 해석된 문장과 비교·대조함으로써 사마천(司馬遷)의 집필 의도를 한층 더 명시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중국 서한(西漢)의 사마천에 의해 저술된 『史記』에는 황제(黃帝)시대부터 한무제(漢武帝)에 이르는 약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특히, 전국칠웅¹⁾의 실존했던 인물 언행에 관한 생동감 있고 선명한 대화 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통일된 문자와 문법의 사용으로 다른 문헌보다 그 언어가 더욱 규범적이다. 이를 참고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史記』는 대표적인 역사서이지만 문학적으로 허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사마천이 역사적 사실을 빌려 언어의 함축 값을 각 문장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창작 의도는 아래 문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 『史記·太史公自序』

[정본(正本)은 명산에 깊이 간직하고 부분(副本)은 수도에 두어 후세 성인 군자들의 열람을 기다린다.]

“仆誠以著此書, 藏之名山, 傳之其人.” 『報任安書』

[저는 진실로 이 책을 저술하여 명산(名山)에 보관하였다가 내 뜻을 알아줄 사람에게 전합니다.]

사마천은 제3의 이상적 청자인 “俟後世聖人君子”와 “其人”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史記』의 대화문은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구조로 되어있지만, 사마천이 설정해놓은 실제적인 청자는 바로 독자(讀者)인 셈이다. 그가 제공한 문장의 함축 정보가 독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된다면 『史記』가 갖는 역사서의 특징이 보다 더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라이스(P. Grice)의 대화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통하여 대화문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고, 화자의 의도와 그 속뜻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겸경부사(謙敬副詞)는 대부분 부사연구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어 통사론, 의미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용론 관점이나 단독적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

1) 전국칠웅(戰國七雄):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진(秦)나라, 초(楚)나라, 연(燕)나라, 제(齊)나라, 조(趙)나라, 위(魏)나라. 한(漢)나라의 일곱 제후(諸侯).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디지털한국한자어사전』 참고)

라서 본 논문이 고대한어 화용연구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王力古漢語字典』에 반영되어 있는 품사 분류와 기능 설명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²⁾ 학계에서 겸경부사를 포함한 공경을 이르는 명칭은 아직 정하고 있지 않으며 敬辭, 敬詞, 敬語, 敬讓語 등으로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王力 선생과 李運富 선생³⁾의 의견에 동의하여 본 논고의 연구대상을 敬詞 및 表敬副詞로 명명하기로 하겠다. 또한, 이 글은 대화문에서 부사어(狀況語)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표경부사의 화용론적 분석에 관한 글이며 명칭의 정의와 범위에 관련된 정확성은 논하지 않기로 한다.

2. “幸”에 대한 선행연구

‘幸’은 『史記』 대화문에 자주 출현하는 표경부사 중 하나이다.⁴⁾ 일반적으로 술어(謂語) 앞에 위치하여 주된 동작 및 행위의 분위기를 돋우어 주는 추임새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敬詞로서 ‘幸’의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고한어사전】⁵⁾

- ① 길흉화복
- ② 희망
- ③ 황제가 몸소 나옴.

【한어대사전】⁶⁾

- ① 운이 좋다. 의외의 이익을 얻거나, 재해가 없어짐.
- ② 다행히 ; 덕분에, 행복 ; 행운
- ③ 기쁘다. ; 좋아하다.
- ④ 편애하다. ; 총애하다.
- ⑤ 친애를 받는 사람 ; 총애를 받는 사람

2) 王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1984, p.865.

3) 李國英·李運富, 『古代漢語教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 p.125.

4) 분포 수치는 결론을 참고.

5) ①逢凶化吉, ②希望, ③皇帝親臨為幸.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1998年, p.271.

6) ①僥幸, 意外地得到好處或免去災害, ②幸虧 ; 多虧, 幸福 ; 幸運, ③喜悅 ; 喜好, ④偏愛 ; 寵愛, ⑤親愛者 ; 受寵的人, ⑥哀憐 ; 同情, ⑦遇, ⑧ 期望, ⑨敬辭, ⑩ 相當於“正”. 『漢語大字典』, 第9字第1卷, p.466.

- ⑥ 불쌍히 여기다. ; 동정하다.
- ⑦ 만나다.
- ⑧ 기대하다.
- ⑨ 경사(敬辭)
- ⑩ “正”과 같다.

【현대한어사전】⁷⁾

- ① 행복 ; 행운
- ② 행복하고 기쁘다고 여기다.
- ③ 바라다. ; 희망하다.
- ④ 요행
- ⑤ 총애(를 받다.)
- ⑥ 임금이 어떠한 장소에 도착했음을 가리킴.

【설문해자주】

“幸은 길흉화복을 의미한다.”⁸⁾

【고한어어법과 발전】

- 一、상대방의 대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앞에 위치하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행운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한다.
- 二、제3자에게 존경을 표시한다. “幸”은 동사를 수식하고 제3자의 행위를 나타낸다.
- 三、자신의 동작 및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앞에 위치하여 요행이나 행운을 뜻한다. 겸손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낸다. ⁹⁾

【고대한어상식】

존경을 나타내는 부사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때에 쓰인다. 원래 구체적인 뜻을 지녔었지만, 존경을 나타내는데 쓰인 후에는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본래 지니고 있던 구체적인 의미는 흐려지거나 소실되었다.¹⁰⁾

7) ①幸福 ; 幸運, ②認為幸福而高興, ③望 ; 希望, ④僥幸, ⑤寵幸, ⑥舊時指帝王到達某地.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p.676.

8) p.1975.

9) 一、常用在代表對方行為的動詞前, 表示由於對方的行為使自己感到幸運, 從而表示對對方尊敬. 二、表示對第三方的尊敬, “幸”修飾的動詞代表第三方的行為. 三、用在代表自方動作行為的動詞前, 常表示“僥倖”, “幸運”之意, 在表謙卑的同時對對方的尊敬.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2013, 語文出版社, p.1445.

10) 『고대한어상식』, p.151.

【중국고전읽는법】

겸양 존경 부사는 고전 문장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한자들이다. 주로 아래 사람이윗사람에게, 신하가 군주에게, 젊은이가 동년배나 노인에게 사용되는 글자로 자신을 낮추거나 남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이 필요 없지만 상황에 따라 공손한 어투로 번역되기도 한다.¹¹⁾

위 의미와 용법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화자는 청자에게 사랑 및 관심을 받는다(받았다).
- ② 화자는 청자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감을 갖는다.
- ③ 화자는 청자로 인해 이익(효용적 가치)을 받는(얻는) 객체이다.
- ④ 청자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사건)이다.
- ⑤ 청자는 행운(운명)이며, 혹은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이다.
- ⑥ 청자는 일을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
- ⑦ 화자는 언제나 수동적 태도이다. (객체로 존재해야 한다.)
- ⑧ 청자(가 만든 운)로 인해 화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다.
- ⑨ 청자는 화자에게 긍정적인 존재이다.
- ⑩ 대화의 주제에서 대부분 화자는 객체이고,幸이 제한하는 행위의 대상(청자 혹은 제3자)은 주체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경부사 ‘幸’을 사용한 화자는 청자의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받는 객체이다. 객체로서 수동적 상태는 화자가 청자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탕이며, 청자에 대한 신임을 동기화하는 요소이다. 발생한 신임 의지는 화자의 존재성을 청자에게 확인시키는 기제로 언어적 함축을 일으키고 동시에 청자를 중심적 존재로 굳히는 효과를 자아낸다. 그러므로 표경부사 ‘幸’은 화자가 사회적 혹은 능력적으로 청자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존속성을 전달하는 확인 기제로 활용된다.

3.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그라이스(H. P. Grice)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에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

11) 『중국고전읽는법』, pp.136-137.

며 1975년 대화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제안했는데 ‘질’, ‘양’, ‘관계’ 그리고 ‘양태’의 4가지 격률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史記』의 대화문을 통하여 그라이스의 대화협력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3.1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중 질의 격률은 다음과 같다(1975:46).

- A.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마라(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B. 타당한 증거가 부족한 것을 말하지 마라(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 dequate evidence).

질의 격률과 관련하여 아래 대화문을 살펴보자.

(1) 元光四年春, 丞相言灌夫家在潁川, 橫甚, 民苦之. 請案. 上曰: “此丞相事, 何請.”
〔魏其武安侯列傳〕

[원광 4년 봄에 승상은 황제에게 관부의 집은 영천에 있는데, 세도를 지나치게 부려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조사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황제가 말했다: “이것은 승상의 직권으로 할 일인데 어째서 청을 하시오?” 『위기·무안후열전』]

위 (1)에서 화자(황제)의 발화는 승상의 보편적 권위 사실을 근거로 청자에게 확인하는 ‘결론짓기’ 행위이다. 함축<화자(황제)는 청자(승상)의 기본적 권한을 인정한다.>, <화자는 청자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는다.>, <화자는 청자의 태도에 의문을 갖는다.>, <화자는 청자의 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다음 양의 격률에서 발생하는 함축을 살펴보자.

3.2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중 양의 격률은 다음과 같다(1975:45).

- A. 너의 기여가 필요한 만큼 정보적이 되게 하라(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 B. 너의 기여를 필요 이상 정보적으로 만들지 마라(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양의 격률과 관련하여 대화문을 살펴보자.

(2) 起行酒, 至武安, 武安膝席曰: “不能滿觴.” (『魏其武安侯列傳』)

[무안후는 무릎을 자리에 붙인 채 윗몸을 세우고 말했다.“잔에 가득 부으면 마실 수 없는데.” 『위기·무안후열전』]

위 (2)의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제보하였기 때문에 양의 하위격률 A에 의해 함축<화자(무안후)는 잔에 술을 가득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화자는 청자가 원하는 술이 탐탁스럽지 않다.>, <화자는 청자의 태도가 편하지 않다.>, <화자는 청자의 제안에 긍정적이지 않다.>의 의미를 일으킨다. 다음 관계의 격률에서 발생하는 함축을 살펴보자.

3.3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중 관계의 격률은 다음과 같다(1975:46).

A. 관련된 것을 말하라(Be relevant).

관계 격률과 관련하여 대화문을 살펴보자.

(3) 今乃有意西面而事秦, 稱東藩, 筑帝宮, 受冠帶, 祠春秋, 臣竊為大王恥之. (『蘇秦列傳』)

[지금 왕께서는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기며 스스로 진나라의 동쪽 속국이라 일컫고 진나라를 위하여 제왕의 궁전을 짓고 진나라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이며, 봄과 가을로 진나라에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왕을 위하여 이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소진열전』]

위 (3)은 소진(화자)이 양왕(청자)을 설득하기 위한 단언행위이다. 화자는 계책을 시행하기 위해 함축<진나라는 섬기는 것이 나(혹은 당신을) 부끄럽게 한다>, <나(혹은 당신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의견(합중)을 따라야한다>을 일으킨다. 다음 양태의 격률에서 발생하는 함축을 살펴보자.

3.4 양태의 격률(Maxim of Manner)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중 양태의 격률은 다음과 같다(1975:46).

- A. 명료하게 말하라(Be perspicuous).
 - i. 모호함을 피하라(Avoid obscurity).
 - ii. 중의성을 피하라(Avoid ambiguity).
 - iii. 간결하게 말하라(Be brief).
 - iv. 순서에 맞게 말하라/두서 있게 말하라(Be orderly).

양태의 격률과 관련하여 대화문을 살펴보자.

(4) 灌夫曰: “今日斬頭陷匈, 何知程李乎!” (『魏其武安侯列傳』)

[오늘 목이 달아나고 가슴에 구멍이 뚫려도 정불식이나 이광을 어찌 알겠소? 「위
기·무안후열전」]

위 (4)의 관부(화자)는 정불식의 태도에 언짢음을 느끼고, 승상(청자)의 발언을 부정하고 있는 표현화행의 일부이다.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구체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합한 말을 하라’와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대화는 함축<오늘 목이 달아나고 가슴에 구멍이 뚫려도 정불식이나 이광을 알 수 없거나 혹은 알 길이 없다.>의 일반적인 의미와 함축<오늘 내가 죽음을 당해도 정불식이나 이광을 알 수 없다.>, <나의 죽음으로도 정불식이나 이광을 알 길이 없다.>, <내가 죽더라도 정불식과 이광은 모를 것이다.>, <나는 높은 지위가 아니니 높은 지위의 정불식이나 이광은 내가 죽는다해도 모르거나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불식과 이광처럼 높지 않고 하찮은 존재이다.>, <높은 존재인 정불식이나 이광은 하찮은 존재인 내가 죽는다고 해도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의 특별한 의미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청자에게 간접적이고 속마음을 보다 노골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 혹은 청자가 대화의 격률을 항상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피하는 경우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닌 의외의 특별한 언어적 함축 의미가 발생한다. 『史記』의 대화문에서는 화자가 표경부사 ‘幸’을 기제로 하여 대화 격률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화자가 어떠한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청자에게 고의적 드러내는 것을 ‘격률무시(flouting a maxim)’이라 한다. 다음에서는 『史記』의 대화들이 격률을 어떻게 무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률 무시가 어떠한 효과

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 表敬副詞 “幸”의 언어 함축

『史記』 대화문에서 표경부사 ‘幸’은 단언·언약의 화행에서 주로 사용되며 총 42회 출현한다. 본 장에서는 표경부사의 구조와 의미의 양상을 토대로¹²⁾ 대화협력원리를 통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예문의 ‘幸’에 대한 번역은 따로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5) 齊王侍醫遂病, 自練五石服之.

臣意往過之, 遂謂意曰: “不肖有病, 幸診遂也.”

臣意即診之, 告曰: “公病中熱.” (『扁鵲倉公列傳』)

[제나라 왕의 시의 수(遂)는 병이 들자 스스로 오석을 달여서 먹었습니다.

신이 지나다가 들러보니, 수(遂)는 신에게 “못난 제가 병이 들었으니, 幸 진찰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편작·창공열전』]

위 (5)는 시의(侍醫) 수(遂)가 병이 들어 청자에게 진찰을 요청하는 대화 행위의 일부분이다. 화자는 “幸”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말하라’와 ‘중의성을 피하라’는 양태의 하위 격률을 무시하고 있다. 화자는 “幸”의 발언으로 요청의 의도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이는 청자를 고의적으로 부추기며 화자의 긍정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화자는 함축<당신이 온 것이 행운이다>, <당신의 재능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당신은 (나에게) 존재감이 큰 인물이다>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幸”은 청자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확인 기제로 사용되었고, 화자는 노골적인 공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6) 留侯曰: “始上數在困急之中, 幸用臣策. 今天下安定, 以愛欲易太子, 骨肉之間, 雖臣等百餘人何益.” 呂澤彊要曰: “為我畫計.” (『留侯世家』)

[유후(留侯)가 말했다: “처음에 황상께서는 여러 차례 곤경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저의 계책을 (幸)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가 안정되어 아끼는 자식으로 태자를 바꾸려 하시는데, 이는 골육 간의 일이므로 비록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이로움이있겠습니까?”

여택이 억지로 요구하며 말했다: “나를 위해 계책을 세워주세요.” 『유후세가』]

12) 자세한 출현 양상은 결론 부분 <표1>를 참고.

위 (6)은 유후(留侯)가 여택(呂澤)의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이다. 화자(留侯)는 황제가 자신의 계책을 사용하였다는 “用臣策”의 기본구조에 “幸”의 표지를 첨가하고 있다. 화자는 “幸”을 사용하여 ‘적합한 말을 하라’는 관계의 격률과 ‘애매한 표현을 피하라’, ‘중의성을 피하라’,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화자의 계책을 선택한 황제(제3자)는 함축<운이 함께 하는 존재>, <까다로운 존재>, <단순하지 않은 존재> 등의 묵시적 의미를 가지며, 화자는 함축<그의 선택을 받은 자신>, <능력과 입지를 황제에게 인정받음>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幸”은 청자에게 과도한 예보적 함축 의미를 일으키고 화자의 합당한 의사를 전달한다.

요컨대 화자는 표경부사 “幸”을 확인 기제로 사용하여 청자가 화자 자신을 인정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사건에서 선택적 행위를 황제의 권한으로 돌려 화자 자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한정시킨다. 따라서 표경부사 “幸”은 표면적으로 공손 기제의 역할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오히려 청자에게 무례한 부정의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灌夫有服，過丞相。丞相從容曰：“吾欲與仲孺過魏其侯，會仲孺有服。”

灌夫曰：“將軍乃肯幸臨況魏其侯，夫安敢以服為解！請語魏其侯帳具，將軍旦日蚤臨。”

(『魏其武安侯列傳』)

[관부가 상중에 있으면서 승상을 찾은 적이 있는데, 승상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다. : “나는 중유(관부)와 함께 위기후를 만나려고 하는데, 마침 중유는 상중이군요.”

관부가 말했다: “장군께서 幸 위기후의 집을 찾아 주려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찌 상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겠습니까? 제가 위기후에게 알려 접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내일 아침 일찍 오십시오.” 『위기·무안후열전』]

위 (7)은 무안후 승상의 인사치레에 답하는 관부(灌夫)의 언약행위이다. 화자는 “幸”을 사용하여 승상이 자신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양태의 하위 격률 ‘불필요한 장광설을 피하라’를 무시했다. 가볍게 대화에 참여한 승상과는 달리, 화자(灌夫)는 “幸”을 발언하며 승상의 ‘별다른 생각 없음’의 가벼운 만남(過)을 ‘생각이 있는’ 방문(臨)의 행위로 의미를 부여한다. “幸”으로 인해 함축<당신은 예외적인 존재>,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 <당신은 무거운 존재>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표경부사 “幸”으로 인해 관부의 협조적 공손 메시지가 오히려 강요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8) 靑固謝曰: “臣幸得待罪行間, 賴陛下神靈, 軍大捷, 皆諸校尉力戰之功也. 陛下幸已益封臣靑. 臣靑子在繯縲中, 未有勤勞, 上幸列地封為三侯, 非臣待罪行間所以勸士力戰之意也. 伉等三人何敢受封!” (『衛將軍驃騎列傳』)

[위청은 굳이 사양하며 말했다. “소신은 幸 군대 안에서 직책을 얻었고 폐하의 신령하심에 힘입어 한나라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 교위가 힘껏 싸운 공입니다. 폐하께서는 幸 신 위청에게 이미 봉읍을 더해 주셨습니다. 소신의 자식들은 아직 강보에 싸여 있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폐하께서 황송하게도 땅을 갈라 세 자식을 열후에 봉하시는 것을 소신을 대장으로 기용하시어 병사들에게 힘껏 싸울 것을 권장하는 뜻에 맞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감히 봉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장군·표기열전」]

위 (8)은 위청(衛靑)이 천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언약행위이다. 대화 첫머리에서 위청(화자)은 봉직을 얻는(得) 일련의 행위를 “幸”으로 제한하며, ‘애매한 표현을 피하라’,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 격률을 일부러 무시했다.

화자를 선택한 황제는 함축<일반적이지 않은 존재>, <고귀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능력이 있는 존재> 등의 묵시적 의미를 가지며, 화자는 함축<일반적인 군인>, <명령을 따르는 존재>, <판단하지 않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등을 청자에게 전달한다. 발생한 함축은 문장“皆諸校尉力戰之功也”의 상황도 제한하며 추가적인 함축<황제는 은혜를 베푸는 존재>, <황제는 너그러운 존재>, <황제는 모든 교위에게 은총을 베푸는 존재>, <모든 교위는 황제의 신령함과 함께 존재함>, <모든 교위는 황제의 은총을 받아 행동하는 존재>, <절대적 황제의 부름을 받는 모든 교위는 능력을 구비하게 됨>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화자는 표경부사 “幸”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극적(劇的)인 경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화자의 거절 행위는 완곡의 효과를 얻는다.

(9) 資用乏, 留久, 諸公賓客多厭之, 乃上書闕下. 朝奏, 暮召入見. 所言九事, 其八事為律令, 一事諫伐匈奴. 其辭曰: “臣聞明主不惡切諫以博觀, 忠臣不敢避重誅以直諫, 是故事無遺策而功流萬世. “今臣不敢隱忠避死以效愚計, 願陛下幸赦而少察之.” (『平津侯主父列傳』)

[그는 밑천도 다 떨어진 데다가 그곳에 머문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여러 공과 빈객 대부분이 그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조정에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글을 올려 저녁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 천자를 뵈었다. 그가 올린 아홉 가지 일 중에서 여덟 가지는 율령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흉노 토벌에 관한 간언이었다. 그 상서문의 내용은 이렇다. “신이 듣건데 현명한 군주는 간절한 충고를 미워하지 않고 널리 의견을

들어보고, 충성된 신하는 감히 가혹한 벌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간언하므로 일에 실책이 없고 공을 만세에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소신은 감히 충성심을 감추거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어리석은 계책을 말씀드립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을 후 용서하시고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평진후·주보열전』]

위 (9)는 주보언(主父偃)이 천자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지시행위의 일부분이다. 주보언(화자)의 의견 제시는 황제에게 주동적 행위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에 용서(赦)를 구하고 있다. 화자는 “幸赦”의 형식으로 표경부사를 첨가하여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과 ‘필요 이상으로 정보 내용을 담지 마라’는 양의 격률을 무시했다. 표경부사 “幸”은 부분에서 전체로 대화의 분위기를 제한하며 함축<청자(황제)는 주동의 절대적 존재(주체)>, <화자(주보언)는 피동의 복종하는 존재(객체)>, <청자는 화자에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강요할 수 있음>, <화자가 청자에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님>, <화자의 지시적 발언 행위가 청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 <화자의 지시적 발언 행위로 청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불충(不忠)에 해당함>, <신하는 군주에게 충을 실현해야 함>, <군주는 백성과 신하를 위해 덕치(德治)로 은혜를 베푸는 정치를 유지해야 함>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격률 무시로 발생한 함축에서 알 수 있듯이 간언의 발화행위가 일반 발화행위와 다른 점은 화자가 “赦”에 “幸”을 고의로 추가한다는 점이며 의도된 공손을 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시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10)優旆曰: “汝雖長, 何益, 幸雨立. 我雖短也, 幸休居.” 於是始皇使陞楯者得半相代. (『滑稽列傳』)

[우전이 말했다. “너희들은 키가 크지만 무슨 소용이나 가련하게 빗속에 서 있구나. 나는 키가 작지만 幸 방 안에서 쉬고 있다. 『골계열전』]

위 (10)은 우전(화자)이 진시황제(제3자)를 자각시키고자 군사들(청자)을 이용하여 풍자하는 간접발화행위이다. 표경부사 “幸”은 화자와 청자(군인들)의 상황을 대조적인 구조로 제한하며 정보를 함축시킨다. 우선 “幸雨立”에서 “幸”은 ‘군사는 모든 상황을 황제에게 받는 객체’로 제한하며, 양태의 하위격률 ‘모호함을 피하라’, ‘중의성을 피하라’, ‘간결하게 말하라’를 무시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함축<키가 크면 쓸모있는 존재이다>, <비가 오는데 서 있는 것은 편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가 오는 데서 있는 것은 황제가 하사한 상황이다>, <편하지 않은 상황 또한 황제의 은혜이다> <유용한 존재여도 황제에게 불편한 상황을 받을 수 있다>,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은 황제가 만들어 준 당신들의 운명이다.>, <비를 맞는 것은 황제의 은혜이므로 당신들

에겐 행운의 상황이다.>, <당신들의 행운의 상황은 불편해 보인다.>등을 일으킨다. 다음으로 “幸休居”의 “幸” 또한 양태의 하위격률 ‘모호함을 피하라’, ‘중의성을 피하라’, ‘간결하게 말하라’를 무시했다. 살펴보면 함축<키가 작으면 쓸모없는 존재이다>, <나는 키가 작아 쓸모없는 존재이다>, <나는 비가 오면 방 안에 있다>, <비가 오는데 방 안에 있는 것은 편안한 상황이다>, <쓸모없는 나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편함은 황제께서 만들어 준 것이다>, <나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존재이다>, <나는 쓸모가 없어도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황제의 총애로 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행운(운명)을 갖는다> 등을 일으킨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황제의 은혜(총애)로 의한 상황’과 ‘운이 좋다’, ‘다행이다’에 동시에 “幸”이란 어원의 허사와 실사가 쓰이는 것에 주목한 말장난(pun)이다. 화자의 말장난은 고의적인 것으로 두 품사 중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공모하여 의도가 전달된다. 표면적으로는 실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부사가 발생시킨 함축 정보로 인해 묵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화자는 일부러 동음이의어 “幸”를 사용하여 청자를 풍자하고, 인상적인 메시지를 받은 황제는 군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5. 表敬副詞 ‘幸’의 한국어 표현

『史記』에 출현하는 표경부사 ‘幸’은 대부분 명사나 동사 혹은 일반부사로 번역되어 있으며 독자에게 문장의 함축정보를 비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경부사 ‘幸’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확인 기제이다.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화자가 갖는 의도나 동기는 표경부사 ‘幸’으로 인하여 함축적 맥락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화용 분석 과정에서는 표경부사 ‘幸’의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간 의미 표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화용적 기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번역된 문장의 함축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표경부사 ‘幸’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살펴보자.

먼저 ‘幸’이 일반부사로 사용된 대화문을 확인해보자.

(11) 嚴仲子固進, 而聶政謝曰: “臣幸有老母, 家貧, 客游以為狗屠, 可以旦夕得甘毳以養親. 親供養備, 不敢當仲子之賜.” (『刺客列傳』)

[제게는 다행히(幸)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집이 비록 가난하고 타향살이를 하느

라 개나 돼지 잡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할 음식을 직접 마련할 수 있으니 당신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객열전』]

위 (11)의 ‘幸’은 일반적 부사로 사용되어 동사 ‘有’ 앞에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다행이다’라는 상황을 제한해주고 있다. 표경부사 ‘幸’과는 달리 제한하는 대상이 황제와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며 의도적 함축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史記』의 대화문에서 표경부사 ‘幸’이 사용되는 경우는 화자가 전략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고, 제한하는 대상이 자기의 신분보다 높은 낮은 평등하든 상관없이 정치적 존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표경부사 ‘幸’이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12) 斯曰: “斯, 上蔡間巷布衣也, 上幸擢為丞相, 封為通侯, 子孫皆至尊位重祿者, 故將以存亡安危屬臣也.” (『李斯列傳』)

[나는 상채라는 시골의 평민이었으나, 다행히도(幸) 황제께서 발탁하여 승상이 되고 열후로 봉해졌으며 자손도 모두 높은 지위와 많은 봉록을 받게 되었소. 『이사열전』]

위 (12)는 李斯(화자)가 趙高(청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화이다. 제4장에서 술회한 바와 같이 표경부사 ‘幸’은 상대방에게 공손한 의도를 전달하는 상황 이외에도 화자가 제3자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화자는 자신의 이름(斯)을 거론하며 대화를 시작한다.¹³⁾ 그러므로 “幸”이 제3자(황제)에 대한 공경의 표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의 격률을 무시한 것으로 함축<화자의 능력은 뛰어나다>, <황제는 화자를 신임할 것이다>, <화자는 충애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너만큼 지위가 있다(크다)> 등을 일으킨다. 번역된 “나는”과 “다행히”의 표현은 독자에게 충분한 함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을 “저는”으로, “다행히”를 “뜻밖에 황제의 아량으로”의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독자가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3) “大王誠幸而許之一言, 則吳王率楚王略函谷關, 守滎陽敖倉之粟, 距漢兵. 治次舍, 須大王. 大王有幸而臨之, 則天下可并, 兩主分割, 不亦可乎?” (『吳王濞列傳』)

[왕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幸) 승낙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 주시면, 오왕은 초나라

13) 화자 이사(李斯)는 자신의 이름(名)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겸손의 태도를 표현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상대방에게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고, 존경함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자(字)나 관직명을 지칭하여 사용했다. 遠庭棟, 『古人稱為漫談』, 中華書局, 1994, p. 36.

왕을 이끌고 가서 함곡관을 공략하고 형양과 오창의 곡식을 확보한 뒤에 한나라 군대의 진출을 막으면서 머물 곳을 준비하고 왕을 기다릴 것입니다. 왕께서 다행히(幸)와 주시기만 한다면 천하를 삼킬 수 있을 것이며, 두 군주께서 천하를 나누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왕비열전」]

위 (13)은 응고(화자)가 교서왕(청자)에게 승낙을 구하는 요청행위이다. 화자는 幸을 일부러 연거푸 사용하고 청자의 조건부 행위를 제한하며, 관계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무시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幸”은 청자의 결정을 유도하는 표지로 사용되었다. 함축<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일반인¹⁴⁾이 아니다>, <당신은 일반인이 아니다>, <나는 일반인이다>, <일반인은 특별하지 않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특별한 지위를 갖는 당신은 결정권을 갖는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당신과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결정권을 갖는 당신은 상위계층이다>, <나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상위계층이 아니다>, <나는 하위계층이다>, <나는 상위계층에게 결정권을 받아야 한다>,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에게 결정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결정권을 받기 위해 친절해야 한다> 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幸”은 “而”¹⁵⁾, “一言”과 함께 수반되어 그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화자의 친절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 “幸”은 권유의 표지로 사용되었다. 함축<당신은 일반인이 아니다>, <나는 일반인이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다>, <당신(특별한 존재)은 특별한 능력을 갖는다>, <당신(특별한 존재)은 상위계층이다>, <당신(특별한 존재)의 행위(능력)는 특별하다>, <당신(상위계층)의 행위는 하위계층에게 필요하다>,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의 행위(능력)를 받는다>, <나는 하위계층이다>, <나는 당신의 능력(지배)을 받는다>, <나는(하위계층) 당신(상위계층)에게 친절해야 한다> 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幸”이 “而”, “之”와 함께 수반되어 동작의 정도를 (“臨”) 더욱 제한하고 청자의 입지를 강조한다. 따라서 대화의 “幸”이 표경부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왕께서 참으로 운허(승낙)한다는 말씀을 한 마디 내려주신다면”과 “왕께서 왕립하여 주시기만 한다면”의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4) 丞相乃再拜曰: “嘉鄙野人, 乃不知, 將軍幸教.” 引入與坐, 為上客. (『袁盎鼂錯列傳』)

[승상은 이 말을 듣고 두 번이나 절하고 말했다. “나는 미천한 시골 사람이라 아는

14) 일반인: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15) 幸而를 함께 표경부사로 본다.

것이 없으니, 장군께서 가르쳐 주시면 다행이겠소(幸). 「원앙·조조열전」]

위 (14)는 승상 신도가(화자)가 원앙(청자)에게 감복하여 가르침을 구하는 요청행위이다. 화자는 “幸”을 청자의 행위(“教”) 앞에 첨가하여 자신의 의도 및 태도가 고의적임을 알린다. 이는 관계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무시했다. 함축<당신은 일반인이 아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다>, <당신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일반인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당신보다 결여된다>, <당신이 나보다 더욱 특별한 존재이다>, <당신의 능력을 나는 유능하게 본다>, <나의 지위가 당신의 지위보다 높다>, <당신의 능력이 높음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나의 능력이 모자람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등을 일으킨다.

화자는 다소 과장스럽게 “教”을 수식하고 청자가 눈치채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幸”이 표경부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위가 자신보다 낮은 상대방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장군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하오)”의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 함축 정보와 번역된 문장 표현을 확인하고 “幸”이 표경부사로 사용된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4장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¹⁶⁾

(5) 齊王侍醫遂病, 自練五石服之.

臣意往過之, 遂謂意曰: “不肖有病, 幸診遂也.”

臣意即診之, 告曰: “公病中熱.” (『扁鵲倉公列傳』)

[“못난 제가 병이 들었으니, 幸 진찰해주십시오.”]

:[“못난 제가 병이 들었으니, 이런 저를 삼가 살펴봐(진찰) 주십시오.”]

(6) 留侯曰: “始上數在困急之中, 幸用臣策. 今天下安定, 以愛欲易太子, 骨肉之間, 雖臣等百餘人何益.” (『留侯世家』)

[유후(留侯)가 말했다: “처음에 황상께서는 여러 차례 곤경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을때, 저의 계책을 (幸) 써 주셨습니다.”]

:[“일찍이 황제께서 다급하고 곤궁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친히 저의 계책을 써 주셨습니다.”]

(7) 灌夫有服, 過丞相. 丞相從容曰: “吾欲與仲孺過魏其侯, 會仲孺有服.”

16) 예문(10)은 풍자성이 짙은 대화로 문장에서 ‘幸’은 실사와 허사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다. 함축의 의미를 알아보는 과정도 중요하나 원전의 내용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래의 표현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따로 술회하지 않았다.

灌夫曰: “將軍乃肯幸臨況魏其侯, 夫安敢以服為解! 請語魏其侯帳具, 將軍旦日蚤臨。”
(「魏其武安侯列傳」)

[“장군께서 幸 위기후의 집을 찾아 주려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찌 상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겠습니까!]

: [“장군께서 영광스럽게도 위기후의 집을 찾아 주려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찌 상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겠습니까!]

(8) 青固謝曰: “臣幸得待罪行間, 賴陛下神靈, 軍大捷, 皆諸校尉力戰之功也. 陛下幸已益封臣青. 臣青子在縑綆中, 未有勤勞, 上幸列地封為三侯, 非臣待罪行間所以勸士力戰之意也. 佗等三人何敢受封! (「衛將軍驃騎列傳」)

[위청은 군이 사양하며 말했다. “소신은 幸 군대 안에서 직책을 얻었고 폐하의 신령하심에 힘입어 한나라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위청은 군이 사양하며 말했다. “소신은 황공스럽게도 군대 안에서 직책을 얻었고 폐하의 신령하심에 힘입어 한나라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9) 資用乏, 留久, 諸公賓客多厭之, 乃上書闕下. 朝奏, 暮召入見. 所言九事, 其八事為律令, 一事諫伐匈奴. 其辭曰: “臣聞明主不惡切諫以博觀, 忠臣不敢避重誅以直諫, 是故事無遺策而功流萬世. “今臣不敢隱忠避死以效愚計, 願陛下幸赦而少察之.” (「平津侯主父列傳」)

[“지금 소신은 감히 충성심을 감추거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어리석은 계책을 말씀드립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을 幸 용서하시고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 [“지금 소신은 감히 충성심을 감추거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어리석은 계책을 말씀드립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① 신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② 신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고/

③ 신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고/

④ 신에게 넓은 아량을 베푸시어/

⑤ 신을 너그러이 보시고/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6. 결론

『史記』에 출현하는 표경부사 ‘幸’은 화자 행위의 목적을 이끌어주는 상황어로 전체 문장의 추임새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幸’의 화행 양상을 분석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상 부사	통사 구조	의미 방향	화행 유형	문장사용		횟수	인물 방향성 (지위)	출현동사
				방향	감정			
幸	幸 + V	긍정	요청	시작	중립	2회	下→上	察
				종결		1회		許
						1회		平
			진술	종결	찬양	2회	下→上	稱, 甚
						3회	上→下	敎, 舉, 甚
					중립	1회	上→下	敎
						시작	중립	2회
			표현	종결	찬양	2회	平	甚
	幸 + V + O		요청	종결	찬양 중립	5회	下→上	聽, 赦
						3회	上→下	敎
				시작	찬양	2회	下→上	得, 許
						1회	上→下	卒
			진술	시작	찬양 중립	5회	下→上	得, 用, 列, 致
						8회	上→下	告, 至, 敎, 臨, 許, 得
				종결		1회	平	聽
						2회	上→下	辱, 過
			감사	종결	찬양	1회	下→上	甚

위의 <표1>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이 진술화행, 표현화행, 감사화행에서 표경부사 ‘幸’을 사용한다. 화자는 중립의 형식적 의도와 요청 및 찬양의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각 동사 앞에 ‘幸’을 첨가하여 대부분 긍정의 표지로 활용했다. 동사의 정보와 함께 생성된 공손의 함축 기제는 청자에게 긍정적 찬양의 메시지로 전달된다.

이상 그라이스의 대화협조원리를 통해 표경부사 ‘幸’이 사용된 대화문을 살펴보았다. 화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幸’의 기제로 청자에게 겸허와 공경의 흔적을 남긴다. 대화에서 표경부사의 기제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술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축 정보를 일으켜 고의로 대화 격률을 무시한다. ‘幸’의 고의적 사용이 언어적 함축으로 여러 정보를 발생시키고 전체 대화의 양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고전문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표면적 의미

뿐만 아니라 화용적 접근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청자에 해당하는 독자들이 『史記』를 포함한 한문고전작품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친숙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2015.
- 許 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註』, 上海古籍出版社, 1988.
- 王 力,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1984.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 洪成玉, 『謙詞敬詞婉詞詞典』, 商務印書館, 2012.
- 陳 濤 主編, 『古漢語常用詞詞典』, 語文出版社, 2006.
- 楊伯峻, 『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2000.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13.
- 李國英·李運富, 『古代漢語教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
- 遠庭棟, 『古人稱為漫談』, 中華書局, 1994.
- 이성범,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16.
- _____,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18
- Yan Huang,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원, 2016.
- 최윤선, 『비관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15.
- 안희진, 이운부, 『중국 고전 읽는 법』, 박이정, 2014.
- Peter Grundy 著, 박철우 譯, 『화용론의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H.P.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et Mogan, J.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83-106.)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史記, 表敬副詞, 幸, 合作原則, 語用				
Key Words	영문	Records of Grand Historian, Respect adverb, Xing, Cooperative Principle, Pragmatics				
<div>Pragmatic Study on the Respect Adverb “Xing” in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Conversation Section</div> <div>Baek, Jong-le</div> <p>By meticulously analyzing the implicated meanings of the honorific-expression (表敬) adverb ‘幸 (xing)’ which appears in the conversation sections of 『史記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through the principles of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and comparing it with the sentences translated into Kor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its efficient expressions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For this purpose, I first looked into the dictionary meanings of ‘幸 (xing)’ and examined its fea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speakers and listeners in the course of communication. When it is used as the honorific-expression (表敬) adverb, ‘幸 (xing)’ is not simply interpreted as a usage of the expletive word, but can be also expr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ext before and after. Thus, even if it is grammatically the same form of syntax, it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re expressed differently by the implicated meanings, depending on the sentence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백종이 / 白鍾怡 / Baek Jong-le				
	소 속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Em@il	baizhi@dankook.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05.20	심 사 일	2020.05.25	게재확정일	2020.06.11